



요셉의원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6년 4월 제 **145-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선우경식 초대원장 18주기 추모행사 성황리 개최

4월 13일 명동성당에서 추모·감사 음악회, 16일 가톨릭회관서 심포지엄



선우경식 선생 선종 18주기를 맞아 4월 16일 오후 1시반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구요비 총대리 주교 (사진 왼쪽 아래), 요셉나눔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우 선생의 헌신적 삶과 영성을 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요셉나눔재단(이사장 윤병길 신부)은 본원 초대원장 선우경식(요셉) 선생의 선종 18주기를 맞아 추모·감사 음악회와, 그의 형제애와 헌신을 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월 1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제20회 '노래의 날개 위에' 추모·감사 음악회는 선우 선생을 기리는 한편, 그의 뜻에 공감해 무료 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일반 봉사자, 6,000여 명의 정기 후원자들이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본문 기사 참조)

사흘 뒤인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는 염수정 추기경과 구요비 총대리 주교, 요셉나눔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한국교회사연구회장 조한건 신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재단과 (재)한국교회사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의사 선우경식 선종 18주기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네 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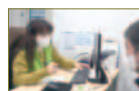
1

선우경식 선생 선종 18주기



8

요셉나눔재단 소식



11

봉사자 코너



16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20

국성회 소식



학술 심포지엄 참석자들. 왼쪽부터 주제발표자인 김승애 수녀(미리내 성요셉 애덕수녀회), 김평만 신부(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최현순 교수(서강대 전인교육원), 김선필 연구원(서강대 신학연구소),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박준양 신부(가톨릭대 성의교정), 이경식 박사(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홍근표 신부(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조한건 신부(한국교회사연구소장).

답으로 구성돼 약 네 시간 동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선생의 삶과 정신에서 새로운 힘과 방향 발견하기를”



종합토론에서 발표하는 홍근표 신부.

이날 개회사에서 요셉 나눔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이 선우경식 원장님의 삶을 성서학적, 사회학적, 교의신학적, 교회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물질 만능주의와 무신론적 사고가 팽배한 이 시대에 새로운 삶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인간다움의 회복을 모색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 순서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정완현 신부(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의 대독을 통해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성 요셉을 닮은 삶을 살아내신 선우 선생님, 가톨릭 사회교리와 시노달리타스에서 바라본 선우 선생님, 그리고 평신도의 성화 직무에 응답하셨던 선우 선생님 등 평신도 의사로서의 생애와 영성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학술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국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모범과 영성을 잘 밝혀내는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요비 총대리 주교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요셉 나눔재단과 한국교회사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선우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 연대의 길,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의 길을 되새기면서 선생의 삶과 정신을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힘과 방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요셉 영성을 '살아낸' 선우경식 요셉



김승애 수녀가 제1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승애 수녀(미리내 성요셉애덕수녀회)는 <마태오 복음의 성요셉 영성을 '살아낸' 선우경식 요셉>이란 주제로 선우 선생의 영성을 성서학적으로 조명했다. 김수녀는 선우 선생이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하느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로움’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생명을 보호했던 요셉의 순명과 궤를 같이하며, 율법에 매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자신을 개방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요셉 성인이 목수로서 실천적 지혜를 구현해 ‘미미한 주변부’인 나자렛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진리를 삶으로 증명한 것처럼, 선우 선생 역시 의사라는 전문직을 통해 소외된 주변부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헌신함으로써 하느님 말씀을 구체적 의술로 형상화했다고 말했다.

김 수녀는 선우 선생의 일기를 인용해 선우 선생이 자신을 카인에 대입하며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했고, 여기에서 ‘가난한 환자는 하느님이 내게 보내신 값진 선물’이라는 고백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선우 선생의 영성이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개입에 자신을 여는 ‘순명의 영성’이자, 상처 입은 이를 조심스럽게 품어 안는 성 요셉 특유의 ‘다정함의 영성’이었다고 정의했다.

교회 사회교리로 본 선우경식과 요셉의원



제2 주제 발표자인 김평만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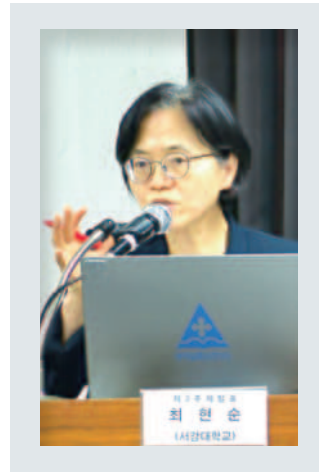
제도가 외면한 인간 존엄성의 자리를 책임 있게 채워나가는 응답의 장이라고 보았다.

요셉의원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무료 급식, 목욕, 재활 등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보조성의 원리”를 실천했으며, 이는 일방적 시혜를 넘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동행’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선우 원장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를 시대적 징표로 읽고 교회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정신은 필리핀 요셉의원 설립 등 아시아로까지 확

장되었다고 밝혔다. 오늘날에는 주요 과제의 하나로서, 고립된 ‘청년 계층’을 새로운 가난한 이들로 식별하고, 이들에게 공동선과 연대의 원리를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난한 환자를 ‘얼굴과 이름을 가진 인격체’로 대해”



제3 주제 발표자인 최현순 교수.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현순 교수(서강대 전 인교육원)는 <시노달리파스로 비춰본 선우경식 선생의 삶>을 주제로, 가난한 환자들을 자신과 똑같은 하느님의 형제로 생각한 선우 선생의 인간관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최 교수는, 선우 원장이 환자들을 ‘행려자’나 ‘노숙자’라는 익명의 집단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고유한 삶의 역사를 지닌 ‘얼굴과 이름을 가진 존재’로 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을 인간 존엄성의 핵심으로 여겼으며, 이는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시노달리파스 즉, ‘함께 걷기’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선우 선생은 시노달리파스의 핵심인 ‘상호 의존적 관계’를 실천하며, 환자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다고 고백하는 수평적 태도를 유지했고,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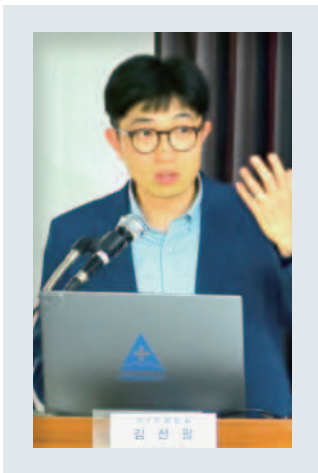
최 교수는 선우 선생의 삶에 대해, 1988년부터 이어온 성경 공부와 기도가 날실이 되고, 의술이 씨실이 되어 엮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강조하고, 부자들에게도 각자의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김선필 연구원(서강대 신학연구소)은 <성화의 소명에 응답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 : 선우경식 선생의 삶과 신앙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선우 선생은 보편적 성화의 소명을 가진 ‘교회의 사람’으로



안대를 따라 심포지엄 발표장에 들어서는 염수정 추기경(왼쪽).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4 주제 발표를 하는 김선필 연구원.

서 일상의 성화에 꾸준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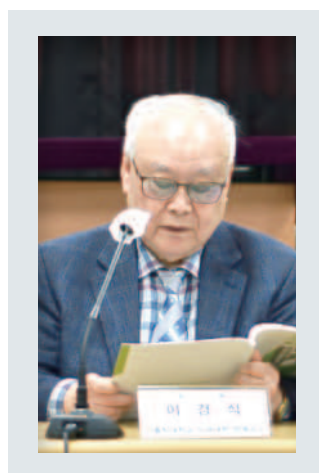
선우 선생은 엘리트 의사라는 사회적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했으며, 이는 세상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평신도 사도직의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김수환 추기경 등 교회의 목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회의 사명에 동참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항상 교회 정신을 간직하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식별해 나갔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성실만이 거룩하게 한다’는 다짐 아래 선우 선생은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고, 진료실을 하느님을 만나는 성소로 변화시키는 등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상품화 시대에 ‘생명의 가치’ 되돌려줘”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선우 선생의 대학 2년 선배인 이경식 박사(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예수의 작은 형제회’



종합토론에서 발언하는 이경식 박사.

재속회에서 선우 선생과 20여 년을 함께 활동하며 그가 샤를 드 푸코가 지향했던 나자렛 예수의 삶을 닮은 ‘끝자리의 삶’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성가정의 영성을 일상에서 살았던 그는,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면서도 수도자처럼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암 투병 과정에서도 죽음을 ‘삶

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며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몸소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선우 선생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을 ‘꽃봉오리’라 부르며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앞서의 주제발표를 통한 통합적 이해 속에서 드러나는 선우 선생의 삶과 영성적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가난한 이들을 얼굴과 이름을 지닌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며 그들의 존엄을 최우선에 두었고, 둘째는 일방적 베품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연대와 호혜의 관계로 이끌었고, 셋째로 그의 의료활동은 육체만이 아닌 인간의 삶 전체를 돌보는 전인적 치유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홍 신부는, “이같은 선우 선생의 삶은 시대를 넘어 반복적



종합토론자로 나선 조한건 신부



종합토론 좌장인 박준양 신부

으로 요청되는 복음적 응답의 전형으로서, 오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살아있는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가 상품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의술을 '생명 봉사'의 가치로 되돌린 선우 선생의 공로를 연구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할 그의 '침묵의 영성'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한건 신부는 선우 선생에게서 성 요셉 영성과 샤를 드 푸코의 영성이 어떻게 '나자렛 영성'으로 통합되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요셉의원 설립 과정에서 보여준 교회 지도자들과의 협력은 오늘

날 교회가 지향하는 시노달리타스의 훌륭한 역사적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을 하는 염수정 추기경

AI와 로봇 시대에 '인간 의사'의 가치 부각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준양 신부(바티칸 국제신학위원회 위원)는, 선우 선생은 말로 하는 긍정 신학을 넘어 침묵 속에서 숨겨진 하느님의 신비를 관조하고 실천한 요셉 성인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현대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는 새로운 신학 연구의 실제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이어 선우 선생의 의사로서의 삶은 AI와 로봇이 의료를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 의사'의 참된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은 참석 관중의 질문에 "요셉의원은 비록 1차 병원이지만 120여 명의 전문의 봉사자가 포진한 질적으로 우수한 병원"이라고 답하고, 선우 원장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인격적 감동을 준 분이라고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발표 시간 내내 꼼꼼히 필기를 하며 열심히 경청한 염수정 추기경은, 영등포성당 주임신부 시절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급식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줬던 기억과 선우 선생의 헌신을 회상하고, 참석자들에게 강복을 내리며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심포지엄 발표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염수정 추기경과 구요비 총대리 주교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

제20회 '노래의 날개 위에' 음악회 공연



'8년 만에 명동성당에서 다시 만난 감동의 선율'

선우 선생의 뜻 기리며 봉사자·후원자와 함께한 위로의 무대



4월 13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우선생 추모 및 감사음악회.

봄꽃이 흩날리던 4월 13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는 레퀴엠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 퍼지며 선우경식 선생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성전 안을 깊이 적셨다. 이어 감성 짙은 우리 가곡과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의 합주가 요셉의원 봉사자와 후원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노래했다.

지난 2018년 제19회 공연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노래의 날개 위에' 음악회가 8년 만에

재개돼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공연에 앞서 서울대교구 구요비 총대리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고인이 세상을 떠나신 지 18주기가 되지만, 부활 신앙 안에서 여전히 그분의 삶과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살아야 할 길을 일깨워 준다”며, “그분의 고귀한 뜻을 따라 봉사하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성직자와 수도자, 후원자와 봉사자



중후하고 깊이 있는 화음을 선사한 동성OB 합창단(왼쪽)과, 열창하는 소프라노 구은경, 원로 소프라노 송광선 씨의 공연 모습.



등 9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해 성전 안을 가득 메운 가운데, 공연 시작 전 선우 선생과 요셉의원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가톨릭평화방송 신나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은 모두 4부로 구성돼 클래식 성가와 한국 가곡을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부 '추모' 무대는 트리니타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모차르트 레퀴엠의 '눈물로 가득한 그날(Lacrimosa)'을 연주하며 막을 열었다. 이어 바리톤 김정석의 '주님 저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소서(Libera me Domine)', 소프라노 구은경의 '자비로우신 주 예수여(Pie Jesu)', 존 루터의 '시편 23, 주님은 나의 목자'가 차례로 올려 퍼지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어루만졌다.

2부 '감사 1'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들의 독창 무대로 꾸며졌다. 소프라노 구은경의 '수선화'는 맑고 청아한 그리움을, 테너 강훈의 '내 맘의 강물'은 잔잔하고 깊은 감흥을 더해주었다.

실내악 연주로 편곡된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는 이번 음악회 제목이 담고 있는 정서를 한층 깊이 있게 드러냈다. 특히 원로 소프라노 송광선은 '그대 있음



공연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서울대교구 구요비 총대리주교

에'와 '봄치녀'를 열창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3부 '감사 2'에서는 동성OB 남성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평화의 기도', '성모송', '도라지꽃'을 선보이며 남성합창 특유의 중후하고 깊이 있는 화음을 선사했다.

4부 '감사 3'은 트리니타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테너 강훈과 바리톤 김정석의 듀엣이 돋보인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You raise me up)'을 시작으로, 엔니오

모리코네의 '환상 속으로(Nella Fantasia)', 첼리스트 이경미의 솔로 협연이 빛난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미사' 중 '복되도다(Benedictus)'가 연주됐다. 이어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며, 참석자 모두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요셉나눔재단 윤병길 이사장 신부는 마무리 인사말에서 "용기 있게 내미는 작은 손길들이 지속될 때 선우 선생님의 영성과 정신 또한 꽃 피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음악회가 소중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자리가 되었길 희망하며,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트리니타스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와 함께 테너 강훈(가운데 사진)과 바리톤 김정석의 협연 모습(사진 오른쪽). 공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요셉나눔재단 윤병길 이사장 신부(사진 왼쪽).



선우 선생 묘지 참배 및 추모 미사 봉헌

선우경식 선생의 선종 18주기를 맞아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고영초 병원장 등 본원 임직원 10여 명은 기일 하루 전인 4월 1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묘소를 참배하고 연도를 올렸다.



지난 4월 17일 선우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연도를 올리는 임직원들.

자리를 함께했다. 안 수녀는 선우 원장이 생전에 농담으로 '내가 죽으면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무덤에 와 달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셉의원에 연락한 뒤 함께 묘소를 찾았다. 안 수녀는 빨간 장미가 든 꽃다발을 선우 원장의 무덤에 바치고 절을 올렸다.

이날 참배에는 선우 선생의 도움으로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 본원 직원으로 일했던 이상민(대건 안드레아) 씨와, 2004년 수련기 시절 요셉의원에서 3주간 실습을 하며 선우 원장으로부터 깊은 감화를 받았다는 빈센트 드 폴 자비의 수녀회 소속 안힐다 수녀도

묘소 참배에 이어 오후 5시 미사에서는 안 수녀를 비롯한 본원 직원과 봉사자가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의 주례로 추모미사를 봉헌하고 고인을 기렸다.



국민훈장 석류장

본원 김정식 치과원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받게 됐다"며, "아직은 건강이 괜찮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선우 선생의 뜻을 생각하며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987년 본원 개원 초창기부터 치과 진료에 참여해온 김정식 본원 치과원장(83)이 4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거행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다. 김정식 원장은 '39년간 의료봉사를 이어오며 노숙인과 행려자, 쪽방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체계를 구축해 가난한 환자의 삶과 존엄 회복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원장은 무료 진료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한 요셉의원 설립자 고 선우경식 원장의 뜻에 공감해 참여를 결심하고, 개인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틈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요셉의원에서 진료 봉사를 했다. 또 20여 년 동안 요셉의원 치과봉사회장을 맡아 진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을 이끌고, 치과 의료기구를 기증하는 등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같은 공로로 2016년 12월 국민추천포장을 받은 바 있다. 김 원장은 "가톨릭 신자로서 봉사는 당연한 일인데 쑥스럽게 또 상을



본원 전성훈 내과 봉사의 JW중외봉사상 수상

가 유가족과 보호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전 교수는 노인 복지관 등에서 420회 이상의 건강 강좌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만성 질환 관리와 질병 예방에 힘쓰는 등 우리 사회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 왔다.

지난 1996년부터 30년간 본원 봉사로 헌신해 온 전성훈(65)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가 4월 10일 '제34회 JW중외 박애·봉사상 시상식'에서 JW중외봉사상을 받았다. 전 교수는 특히 2011년부터 의료봉사 전담 의사로서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보육원,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1,350회 이상의 무료 진료를 수행해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팽목항 현장으로 달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집전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이 주

관하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미사'를 집전했다. 요셉 성월에 봉헌된 이 미사에서 홍 신부는 성 요셉의 '의로움(디카이오스)'의 참된 의미에 대해 강론했다. 강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요셉의 의로움은 규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의 속뜻—곧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리사이식 의로움을 따랐다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법대로 합시다'는 말은 때로 이웃과의 단절이며, 법이 인간을 위한 것임에도 오히려 인간에게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잘못된 제도와 법의 폐해를 '구조적 죄'라고 부르며, 구조적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앙리 뒤낭이 포로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것처럼, 당연시되던 구조를 깨는 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한국의 복지·의료 제도는 주소지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여, 노숙인·이주민·미등록 체류자 등을 자동으로 배제합니다. 선우경식 선생은 바로 이런 구조적 틀을 깨고, 제도 밖의 생명들을 돌봄으로써 참된 요셉의 의로움을 실천했습니다. 또 요셉 성인은 침묵 속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로움을 드러냈으며, 우리가 그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선에서 멈출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것인가. 요셉의원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와 연대, 그리고 나눔과 봉사로 함께 참여하는 삶이 요청됩니다.

KBS2 <셀럽병사의 비밀> 선우경식 원장편 방영

지난 4월 7일, KBS2 프로그램 <셀럽병사의 비밀>(51회 '1987 사람을 고치는 기묘한 병원 - 의사 선우경식 편')을 통해 요셉의원 설립자이자 초대원장인故 선우경식 선생의 삶과 정신이 집중 조명되었다.



'셀럽 병사의 비밀' 인트로 장면.

이번 방송은 20년 넘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참된 인술을 펼친 선우 원장의 숭고한 발자취를 감동적으로 담아냈다.

무료 진료뿐 아니라 밥과 옷을 제공하고, 나이가 환자들의 재활·자활을 도와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려 한 선우 원장의 부단한 노력은 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쪽방촌의 슈바이처'로 불린 선우 원장의 정신을 다시금 세상에 알린 이번 방영은 우리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방송을 시청한 요셉의원 가족들은 설립자의 초심을 되짚어보며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위한 봉사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방송 다시보기 : '셀럽병사의 비밀' 홈페이지 (<https://program.kbs.co.kr/2tv/enter/celebsecret/pc/index.html>)
셀럽병사의 비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KBS_secret)

석교상사 후원 차량 운행 시작

2019년부터 '사랑 나눔 골프대회'를 통해 본원을 후원하고 있는 석교상사 이민기 회장

이 딸 고 이지혜 안나 양의 이름으로 기부한 소렌토 차량이 본원에 입고돼 지난 3월 26일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가 축복식을 거행하고 운행에 들어갔다.

이 차량은 본원과 동자동 쪽방촌에 위치한 요셉이웃사랑센터에서 환자 이송과 물품 운반에 활용하게 된다.



석교상사 후원 차량 축복식 모습.

동자동 쪽방주민과 병원 내원자 등에게 부활 나눔 행사

본원은 부활절을 맞아 요셉이웃사랑센터 주관으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동자동 쪽방촌과 서울역 광장, 서울역 부근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및 쪽방 주민 1,600여 명과 병원 내원 환자 150명, 수녀원 아웃리치 대상자 150명 등 모두 1,920명에게 구운 계란과 두유를 나눔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요셉이웃사랑센터장 안분이 수녀와 영성센터장 이희숙 수녀 등 직원 8명과 현장실습 신학생 3명, 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



부활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요셉이웃사랑센터 직원과 봉사자들.



쪽방촌 향기

일상의 하나가 된 '요셉의원 가는 길'

“요셉의원 가는 길이 저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으로 진료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2023년 5월 2일, 요셉의원 진료 가는 첫 날,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영등포행 열차를 탔습니다.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따라가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을 무심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코비드19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혼돈의 시기를 견디고 마주한 2023년 3월,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남은 생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결심을 했습니다.

현역에서 은퇴를 결정하고 4월에 폐업신고, 병원 정리와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일과 관계에서의 끝맺음이 시작보다 몇 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대학병원 거쳐서 개업의사로 활동 중에 찾아주셨던 환자분들과 교류하였던 진료 공간이 이제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직위와 활동을 내려놓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요셉의원을 떠올렸습니다. 오래 전, 빈자의 성자, 선우경식 선생님의 가난한 사람을 위한 헌신적인 삶과 그 공간인 요셉의원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기사를 읽었을 때, 큰 짐을 지고 가시는 선우선생님께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이 동시에 제게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후 선생님의 부고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죄송하고 애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의 좁은 골목을 지나 마주한 낡고 퇴색한 붉은 건물, 요셉의원 간판이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병원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요셉의원 내부는 어둡고, 낡고, 미로 같았습니다. 저의 눈이 적응되자 진료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시는 많은 분들이 보였습니다. 2층에서 원장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진료실 사진 속 선우경식 선생님께 목례를 드렸습니다. 성호를 긋고 도움의 기도를 청하였습니다. ‘요셉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시기를.’

진료실 의자에 앉으니,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환자와 대면하며 늘 해왔던 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긴장하면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호선생님 도움으로, 첫 진료를 무사히 끝내고 안도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의 친절한 배움을 받고, 가던 골목길에 서서 잠시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요셉의원은 이제 제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굳건해 보였습니다.



최덕례

본원 내과 봉사의
건양대병원 온누리진료센터 진료의

선우경식 원장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영등포 요셉의원을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내과 환자들은 대부분 만성 질환자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원에 오시는 환자들은 지금까지 제가 진료한 환자들과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예민하고 거칠었던 언행을 보였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틈을 내어주셨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제어하

기 어려웠던 만성 질환자가 점차 순응하고 정기적으로 진료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치했던 자신의 몸을 돌보고,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서서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즈음, 서울역으로 요셉의원 이전 날이 정해지고, 영등포에서 마지막 진료일에 만났습니다. 영등포에서 서울역 요셉의원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무연고자였습니다.

영등포시절의 요셉의원을 거쳐서 서울역 요셉의원까지 길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요셉의원의 존재 이유는 진료실을 찾아주시는 환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원장님, 수녀님, 직원들, 봉사자들, 후원자들, 많은 분들의 수고와 정성과 사랑이 요셉의원을 움직이고 채워가고 있음을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원 신비와 기적의 역사에 작은 부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며, 감사드립니다. 요셉의원 가는 길이 저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으로 진료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요셉의원과의 함께하는 여정이 제게 작은 것에 감사함을, 내면의 평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료 후 대전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서쪽 하늘을 올려다 보면, 고단한 그들의 삶이 느껴지며, 연민과 슬픔이 슬며시 찾아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수녀님의 글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일 것이다.’

침묵과 함께 기도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



봉사자 코너

본원에서 상담 봉사하는 차지현 봉사자

“2%의 기쁨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원동력입니다”



1층 상담실에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차지현 봉사자.

오랜 시간 방치된 몸과 마음을 안고 찾아온다. 차 봉사자는 진료 전 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본원의 진료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한 뒤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도 파악한다. 본원에서의 상담은 진료를 받기 위한 단순한 접수 절차라기보다 지나온 삶과 아픔을 반추하고 술회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분들과 나는 고난과 상처 이야기를 거울삼아 제가 돌보는 분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얻어 보자고 말하곤 합니다.”

“돌보는 일을 하면서 드는 시간의 98%가 힘들고 고민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의 기쁨이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운 뇌졸중 환자를 돌보기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정성을 쏟았던 미담(본지 2018년 7월호 환자스토토리의 주인공 차지현 봉사자(45)가 지난해 11월부터 본원 상담봉사자로 나섰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처음 본원을 찾은 환자 3~5명을 만나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멀쩡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다

차 봉사자가 본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자신이 돌보는 이들을 치료차 본원에 데려오면서부터였다. 상담팀장의 제의로 상담팀에 합류한 뒤, 그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됐다고 말한다.

“요셉의원에 오기 전까지는 길에서 술 먹고 망가져 있는 이들을 보고 ‘멀쩡한데 왜 저러냐’하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숙인분들과 상담하면서 ‘멀쩡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됐어요.”

본원 상담실에서 그가 마주하는 초진 환자들은 대부분

죽을 고비 넘기며 남을 위한 헌신의 길로

차 봉사자가 어려운 이를 위한 헌신의 길로 들어선 데는 분명한 계기가 있다. 25세 무렵 미국 유학 중 작은 모닝 차를 몰다 대형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차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떨어졌으니 웬만하면 목숨을 잃을 사고였다. 그러나 그는 뼈 하나 부러지지 않은 채 빠져나왔고, 의료진들은 기적(Act of God)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제 삶이라도 제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하느님이 저를 쓰시려고 사막에서 구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지요.”

귀국 후 세례를 받고, 교직에 몸담으면서 봉쇄 가르멜 수녀원에 입소했으나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퇴소당했다. 좌절이었지만 봉사는 멈추지 않았다. 26세부터 시작한 봉사가 올해로 만 20년. 공부방 교사, 탈북자 멘토링, 독거노인 말동무, 호스피스 음악 봉사, 소년원 미사 반주까지, 그 형태는 달라졌어도 방향은 한결같았다.

‘살아가는 근력’이 부족한 이들 곁에서

현재 그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이는 12명. 시각장애인, 노숙 중 부부가 된 사람, 다자녀 가정, 신경섬유종을 앓는

여성, 자립이 필요한 지적장애인 청년, 미혼모까지 처한 환경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곁에 아무도 없는 외톨이라는 것. 서울, 인천, 광주에 흩어진 이들을 그는 매주 직접 찾아간다.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전화가 오기도 한다. '아내가 칼로 목을 그었어요'부터 '먹을 게 떨어졌어요'까지, 매일 크고 작은 위기가 이어진다. 자신의 치매 어머니 돌보라, 생계를 위해 피아노 교습하라, 봉사 대상자 방문하라 동시에 서너 가지를 감당해야 하는 그에게 어떻게 버티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거의 인간의 힘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래도 버티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들은 '살아가는 근력이 부족한 분들'이라고 표현한다.

“보통 사람들은 웬만한 파도는 견뎌내는데, 이분들은 기본기가 없어서 그럴 힘이 없어요. 마치 벚짚으로 집을



지는 아기돼지 같은 상황이에요.”

비영리 봉사단체도 설립

지난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시온'을 통해 지적장애인 청년 두 명을 바리스타 과정에 보내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고, 올 5~6월 카페 개업과 함께 이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경섬유종 여성이 만든 뜨개질 작품도 카페에서 선보인다. 살아갈 근력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진짜 돌봄이다.

본원이 동자동 쪽방촌에 요셉이웃사랑센터를 열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진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차 봉사자는 눈을 반짝였다.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본원 상담실에서, 그리고 서울과 인천과 광주를 오가며, 그 2%의 기쁨을 음미하는 그가 쪽방촌에서 또 어떤 기쁨을 찾아낼지 자못 기대된다.+

환자스토리



7,000만 원 떼이고 환병 앓이하는 이향천 환자

“가톨릭에 귀의해 마음을 비워보려고 합니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화를 돋우는 일도 많이 접하지만, 큰 돈을 떼이는 일은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부산이 고향인 이향천 환자(가명·64)는 25년 동안 타일공을 하며 모은 7,000만 원을 한순간에 잃고, 서울로 올라와 동자동

쪽방촌에서 망가진 몸과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르고 있다.

“스물 한 살 때부터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돈을 모아

땅 챙겨 달아나버리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밖으로 나왔지요.”

이 씨는 친척에게서 5,000만 원을 빌려 일단 타일을 대주었던 공장의 자재 대금을 갚았다.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와 서울역 앞 쪽방촌 여인숙에서 지내며 매일 술로 분을 삭였다. 그때는 무료급식소에서 하루 한 끼 정도만 먹고 매일 소주 세 병씩 들이키는 게 일과였다.

“10년 가까이 쪽방촌 공원에 앉아 술을 마시는 저를 보고 동자동 사랑방 총무가 알코올의존증 같다며 용인 백암정신병원에 입원을 주선해 주었어요.”

백암정신병원에서 두 달을 입원하고 퇴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정신이 번쩍 든 이 씨는 스스로 백암정신병원을 찾아가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서울 제기동에 있는 명병원에도 세



번 정도 입원했다. 그는 “술을 계속 마시다보니 어느 한 순간 몸이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백암정신병원에 갔을 때 안성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고혈압, 당뇨에 간경화와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장기간의 과음 탓인지, 두 달 전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누워 있을수록 통증이 더 심해졌다. 마침 요셉 이웃사랑센터 방문진료팀이 찾아와 상태를 살피고는 곧바로 요셉의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췌장에 물혹이 생겼고, 피검사에서는

간경화로 나왔다. 암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암 유발 수치는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4월 6일 본원에서 초음파 재검진을 받은 이 씨는 보라매 병원으로 전원돼 물혹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췌장암 소견은 없었다.

“이제 술은 끊었지요. 빨리 건강을 회복해 무슨 일든지 해서 친척에게 끈 돈은 꼭 갚을 생각입니다.”

“쪽방촌을 방문하시는 수녀님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고 책자도 받아 읽고 있다”는 그는, “천주교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진정한 신앙을 갖고 싶다”고 담담히 밝혔다. +

후원의 손길



100만 원 생활비 쪼개 매월 5만 원 후원하는 권오상 후원자

“경제적 여유 생기면 더 보태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20년 동안 여러 단체에 후원을 해왔다는 권오상 후원자(70)는 2~3년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 요셉의원을 ‘발견’하고, ‘내가 제대로 후원할 곳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

어 후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 후원자는, “일부 단체들은 후원 대상자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기는 것 같아 방향을 바꿨다”며, “어려운 이를 생각하는 선우경식 선생의 뜻

이 좋고, 요셉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늘 고마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충남 부여 출신인 그는 군 제대 후 서울 신림동에서 4년 간 직장생활을 하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16년 동안 마트 등에 물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을 했다. 20년 전 사업을 정리한 뒤부터는 월 100만 원 정도의 건물 임대 수입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요셉의원에 전화로 후원을 신청한 뒤 처음에는 월 3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형편이 어려워 1만 원으로 줄였고, 현재는 다시 월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비롯해 직원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그는, “조만간 조금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것 같아 후원액을 다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

칠순 맞아 기부금 전한 김길성(마리아) 후원자

“5년 후, 10년 후에도 후원하겠다고 서원했어요”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역 요셉의원에 부산에서 올라온 김길성(마리아) 후원자(70)가 찾아왔다. 10년 전쯤인가 텔레비전에 나온 요셉의원의 활동상을 보고 언젠가 들려야겠다고 생각하다 이번에 큰 맘 먹고 서울에 올라와 후원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요셉의원을 알게 된 뒤부터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설립자인 선우경식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김 후원자는 “주님께 후원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70세에 1,000만 원, 75세에 1,000만 원, 80세에 2,000만 원을 요셉의원에 후원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전부터 조금씩 적금을 넣어왔거든요. 이번에 칠순이 되어 1,000만 원을 후원하게 됐고, 75세와 80세 때

도 후원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

평소에도 다른 단체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는 그는, 60대에 큰 수술을 몇 차례 받다 보니 그전에는 후원을 못 했다고 말했다.

김 후원자는 2,3년 전 지인이 건네준 선우 선생의 전기 ‘의사 선우경식’(위즈덤하우스 간)을 읽고 후원 결심을 더욱 굳혔다고 밝혔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함께.

39년 전 도움 생각나 10만 원 후원한 김선애 후원자

“요셉의원 도움으로 딸 수술받았어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사는 김선애(소화테레사) 후원자(77)는 요셉의원이 처음 문을 연 해인 1987년 콧속에 흑인 생김 둘째 딸의 치료를 주선해 준 요셉의원이 생각나 최근 10만 원을 후원했다. 지난 2월 8일자

‘가톨릭신문’에 난 본원 관련 기사가 계기가 됐다.

김 후원자는 지역에서 언론사업을 하던 남편이 필화사건에 휘말려 구속되고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당시 성남 은행동 달동네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했다. 그때 요셉의원 선우 원장이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적은 비용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

“150만 원짜리 전셋방에 살면서 수백 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당시 지역에서 봉사하시던 메리놀 외방전교회 하유설 신부님(현재 미국 거주)이 요셉의원을 소개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심이 깊은 김 후원자는 당시 달동네 주민들을 도와주며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이끌었고, 고령인 지금도 매일 묵주기도와, 성경공부, 레지오 회합 등으로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6년 2월~3월)

■ 요셉나눔재단

- 가혜경 ■ 강경윤 ■ 고천숙 ■ 고희동 ■ 공승연 ■ 공 현 ■ 구경모 ■ 권성준 ■ 권세미 ■ 권현주 ■ 김경현 ■ 김계태 ■ 김길성마리
- 김동률님생일축하노은혜 ■ 김명중 ■ 김민희 ■ 김베을 ■ 김복순 ■ 김선애 ■ 김성윤 ■ 김소영 ■ 김영환 ■ 김영희 ■ 김용자 ■ 김유나
- 김형용 ■ 김혜영 ■ 김희정 ■ 남명순 ■ 데일리 ■ 도승현 ■ 류경숙 ■ 류기원 ■ 류동주 ■ 모소민 ■ 박계명 ■ 박계래 ■ 박미희
- 박민경 ■ 박성령 ■ 박성진 ■ 박소정 ■ 박수현 ■ 박순덕 ■ 박양현 ■ 박영우 ■ 박유진 ■ 박윤희 ■ 박주연 ■ 박준호 ■ 박진구 ■ 박찬호
- 박한호 ■ 박희진 ■ 배명랑 ■ 배승훈 ■ 백민지 ■ 변성혜 ■ 변의용 ■ 서자연 ■ 서진옥 ■ 손희숙 ■ 송상현 ■ 송승희 ■ 송정희 ■ 송창익
- 송희영 ■ 승미선 ■ 신성철 ■ 심주영 ■ 안미숙 ■ 안소연 ■ 안젤라메리 ■ 양 걸 ■ 양민섭 ■ 양인석 ■ 어미선 ■ 여현국 ■ 오미진
- 오혜정 ■ 우지은 ■ 유주희 ■ 윤병옥 ■ 윤수미 ■ 윤예영 ■ 이광희 ■ 이규현 ■ 이담희 ■ 이동원·백재은 ■ 이동진 ■ 이복상 ■ 이삼진
- 이상호 ■ 이선아 ■ 이소연 ■ 이송희 ■ 이시우 ■ 이우생 ■ 이윤정 ■ 이정옥 ■ 이종걸 ■ 이지만 ■ 이진덕 ■ 이진희 ■ 이창섭 ■ 이채아
- 이현아 ■ 이현철 ■ 이혜미 ■ 이홍복 ■ 임미자 ■ 임미정 ■ 임영수 ■ 임채영 ■ 장문선 ■ 장양순 ■ 장윤정 ■ 장재석 ■ 전선이
- 전의석 ■ 전재우 ■ 정나리 ■ 정달처 ■ 정명화 ■ 정모연 ■ 정선교 ■ 정소영 ■ 정소윤 ■ 정신영 ■ 정영훈 ■ 정일용 ■ 정정호





- 정조만 ■ 조미연 ■ 조아라카타리나 ■ 조영숙헬레나 ■ 조예은
- 조유선 ■ 조윤선 ■ 조은희 ■ 조재희 ■ 조정희 ■ 조현지 ■ 조혜연
- 조효민 ■ 주현정 ■ 진현구 ■ 채유나 ■ 채은정 ■ 천영주 ■ 최경일
- 최상미 ■ 최유나 ■ 최윤정 ■ 최은화 ■ 최정필 ■ 최하영 ■ 최한나
- 추성미 ■ 추정애 ■ 한미애 ■ 한운희엘리사벳 ■ 한유순 ■ 한주희
- 현민숙 ■ 현수미 ■ 홍서경 ■ 홍성창 ■ 홍영안 ■ 홍정우 ■ 황나영
- Canfield Jinhee

■ 요셉의원

- 김민서 ■ 김성철 ■ 김태연 ■ 박주홍 ■ 손영희 ■ 이종헌 ■ 조상현요한
- 조영숙 ■ 진정원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6년 2월~3월)



■ 요셉나눔재단

- (주)세종기획 ■ (주)젠큐릭스 ■ 빛나는수학교습소 ■ 사명통증의학과
- 안아픈경희한의의원 ■ 월곡우리약국 ■ 주식회사유니언플레이스
- 주식회사스크림스디자 ■ 페이지원투어 ■ 후암동성당

■ 요셉의원

- (주)유바이오시스 ■ 과천성당반첸시오회 ■ 미광고회 ■ 용산구의사회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6년 2월~3월)



- 가톨릭대신학교 사제 일동 : 과일 2상자 ■ 가평 꽃동네 수녀님 : 상추 2자루 ■ 강신걸·김선화(피스오브헤븐) : 빵 2상자 ■ 김재수 : 쌀 1자루 10kg ■ 문경사과초록농원 : 사과 30상자 ■ 박*경(부산) : 떡국떡 1상자 ■ 박계형(나다시아) : 귓감, 오렌지, 참외 각각 1상자 ■ 박희경 : 쌀4kg 5포대 ■ 오백준 : 레드향 6상자(60개) ■ 오병이어 떡집 : 떡 10상자(600개) ■ 이상분(아네스) : 약과 1상자 ■ 정 정 : 쌀 10kg 1포대 ■ 최중욱 : 굴 1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6년 2월~3월)



- 김*경 : 의류 패션잡화 2상자 ■ 김*순 : 의류 2상자 ■ 김희진 : 옷 1상자 ■ 박*경(부산) : 의류 패션 1상자 ■ 박*경(부산) : 의류 7상자 ■ 한*숙 : 의류 패션 2상자 ■ 황선영 : 의류 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6년 2월~3월)



- 김희범 : 의약품 1상자 ■ 다림양행 : 비타민 3상자 ■ (주)유바이오시스 : 콜트릭스 텐도리젠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 의료 소모품 1상자 ■ 하나제약 : 넥스파외 19건

+ 소모품·집기를 보내주신 분 (2026년 2월~3월)



- 김*성(도봉구) : 마스크 1상자 ■ 이정옥 세실리아 : 전자 피아노 1대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요셉나눔재단 인사 발령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총무 : 이혜영 (2026년 3월 12일부)

+ 요셉의원 인사 발령

- 의료사업실 실장 : 강혜경 (약제팀장 겸임)
- 간호팀 팀장 : 황문정 (이상 2026년 4월 1일부)
- 관리안내팀 : 한원병 (2026년 3월 30일부)
- 진료협력팀 팀장 : 최연옥, 이태구
팀원 : 김정순, 한원병 (이상 2026년 4월 9일부)
- 사회사업팀 : 박삼현(2026년 2월 2일부)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김성한, 윤승규(내과) 변형권(이비인후과) 이주영(영상의학과) 정인철(일반외과) 김창민(한외과)
- 요셉이웃사랑센터/전공의협의회 방문진료 의사
김문정 김세영 김 완 김주현 김지은 박지희 박형철 서민희 오지혜 윤혜수 이의주 이정민 이지희 전선우 진수임 최별이 현진이
- 약 사 : 고현정 김아영 박진석 어은주
- 간호사 : 정혜수
- 임상병리사 : 조영민
- 방사선사 : 이후민
- 일반 봉사 : [간호팀] 1명 [약제팀] 덕성여대 1명, 동국대 2명 이화여대 1명 [사회사업팀] 3명 [영양팀] 1명 [진료협력팀] 1명 [방문진료팀] 1명(수녀)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6년 02월	1,392 명
2026년 03월	1,689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 (2026년 3월 말 현재)

783,590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요셉의원



신웅 바오로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2026.02~03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다 '취약계층 아동 위한 의료·급식 통합 지원 확대'



무료 급식을 새로 시작한 덤프사이트 지역에서 어린이들과 자리를 함께한 신웅 원장신부.

2026년 2월 19일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으로 부임한 신웅 바오로 신부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외부 무료급식 활동의 재개 필요성을 절감하고, 부임 직후 말라본시티 내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하며 실태 조사에 나섰다.

신 원장신부는 2주간의 현장 방문을 통해 리마(Lima) 지역과 덤프사이트(Dumpsite) 지역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3세부터 초등학생에 이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 5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지역 주민 공지와 신청 접수를 거쳐, 지난 3월 4일부터 리마 지역 70명, 덤프사이트 지역 90명 등 총 160명의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신 원장신부, 지원 대상 아동 가정 직접 방문해 확인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식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되면서 참여 아동 수도 약 200명으로 증가하였

다. 특히 이 지역 아동들은 '요셉의원의 급식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원장신부는 지원 대상 아동 전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급식 방식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요셉의원과의 협약을 맺은 MCU 의과대학 소아과 측은 공동 연구를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급식 프로그램이 영양이 부족한 아동의 건강, 성장, 학업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 원장신부는 현재도 주 3회 급식 현장을 방문해 아동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현장을 찾는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발견할 경우, 요셉의원을 통해 무상 진료와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



복음 묵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래...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자! 그리고 성령님,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저를 하느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입니다.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친아들인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시어 우리의 죄를 처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선사된 성령을 통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어떠한 죄도 다시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도하신 바를 근본적으로 깨달아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하느님의 뜻에 맞갖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의도와는 달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후

회만이 가득했던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제, 기도하는 사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사제가 되게 해 달라고 늘 성령께 청하지만, 권위적인 사제, 일만 하는 사제, 세속적인 향기를 내뿜는 사제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삶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래...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자! 그리고 성령님,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저를 하느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입니다.

이 변함없는 한 가지 마음이 바로 어제를 반성하게 하고, 오늘을 살게 하며, 내일을 희망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 많은 신용 바오로가 오늘도 사제로서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고,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이웃들에게 제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바람을 뛰어넘는 성령의 은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도 성령의 은총을 받아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신 용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과 연계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이 어린이들을 만나는 순간 이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라며 “가난으로 인해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새로 급식을 시작한 리마 어린이들과 함께.

필리핀요셉의원은 무료 진료와 급식, 장학 사업과 집 짓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돌봄 사목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과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밤중에도 급하게 남의 집 찾아갔으나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화장실을 지어주기 위해 여섯 식구가 사는 집을 방문한 신웅 신부. 사진 오른쪽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



정일수록 그런 어려움은 더욱 컸다.

신웅 바오로 신부는 “화장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며, 4월 중에 방문했던 여섯 가정의 집에 화장실

을 지어 줄 계획을 갖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가 있는 집, 그리고 여섯 식구 이상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화장실 건축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몇몇 집들은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 밤중에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처 친척집 문을 두드려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있는 가

계를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이제 밤에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집 안을 뛰어다녔다. 이들은 입을 모아 요셉의원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을 지어 줄 계획을 갖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가 있는 집, 그리고 여섯 식구 이상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화장실 건축을 시작하기로 했다.

은퇴·병환 사제 위한 따뜻한 의료 나눔 실천



진료 중인 은퇴 및 병환 중에 있는 사제들.

필리핀 요셉의원은 지난 4월 9일, 칼로오칸시에 위치한 예수성심 본당(Sacred Heart of Jesus Parish)과 에페소 케어스 미니스트리(Ephesus Cares Ministry)가 공동 주관한 은퇴 및 병환 중인 사제들을 위한 연례 의료봉사에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봉사는 바탕가스 나수그부에 위치한 돈 보스코센터(바틀라오)에서 열린 사제 피정 기간 중 진행됐으며, 약 70여 명의 은퇴 및 고령 사제들이 참석했다. 이 센터와 오래 협력해 온 요셉의원은 의료진을 파견해 필요한 진료와 의

약품을 지원하며 봉사에 힘을 보탤다.

이날 봉사에는 신웅 바오로 신부를 비롯해 닥터 에블린, 닥터 본독, 간호사 말루가 참여했다. 의료진은 참석 사제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각 환자에게 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했다. 또한 본당 소속 치과 의사와 외과 의사, 이발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봉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령의 사제들이 다수 참석한 만큼 세심한 진료와 상담이 이어졌으며, 의료진의 헌신적인 봉사는 참석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전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요셉의원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사제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 원장신부는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사제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셉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한 의료 지원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다”... 장학생들과 함께한 특별한 부활 축제”



부활절날 에그헌팅 행사를 마치고 요셉의원 마당에서 함께 포즈를 취한 장학생들.

신웅 바오로 신부는 부활 대축일(4/5)을 맞아 장학생들과 함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한 후, 부활 교리 퀴즈 대회와 에그 헌팅(보물찾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총 85명의 장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활 대축일 미사와 부활 퀴즈 대회를 통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긴 이후, 에그 헌팅 행사 속에서 마음껏 웃고 뛰며 양손 가득 부활 선물을 받아 든 장학생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신 바오로 신부는 “사순 시기 동안 장학생들이 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판공성사도 성실히 보며,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배웠다”며,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부활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부활 행사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며, 아이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하루가 되었다. +



+ 2026년 2월~3월 신규 후원회원

- 김범준 ● 김소라 ● 김승조 ● 김준희 ● 박명래
- 박지영 ● 오미영 ● 원미자 ● 이동례 ● 전유영 ● 최종희

+ 2026년 2월~3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2,373명 ● 급식 2,928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 (2026년 3월 현재)

- 진료 127,836명 ● 급식 502,043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사순 제4주일 미사 후 신웅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고 있는 장학생.

✦ 미사 안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17:10 요셉의원 내 7층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2026.02~03

홈씨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홍근표 지도신부 강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시며, 광야의 구리뱀 이야기를 통해 죽음의 상징이던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 생명의 표징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곧 부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은 그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부활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청합니다. 이는 부활 신앙이 죽음을 넘어서는 자유를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부활의 삶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된 삶입니다.

셋째, 부활의 삶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사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넷째, 부활의 삶은 자신을 내어놓는 나눔의 삶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갔고, 그 결과 공동체 안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랑이 구체적인 나눔으로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모습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할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고립이 아니라 공동체를,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부활의 기쁨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

[2026년 4월 14일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미사 강론에서(부활시기)]

[선교 현장에서] 국내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에서 성경, 성가집 지원 요청

“함께 나누는 말씀, 살아나는 신앙”

안녕하세요.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의 손순심 안젤라 수녀입니다.

저희 수녀회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삶과, 그 선교의 뿌리가 되는 기도와 관상, 특별히 성체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수녀회에서는 기도 모임과 피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 읽기와 나눔의 시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는 40명 이상의 신자분들이 한 달에 두 차례 함께하시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



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톨릭 성경과 성가집이 오래 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성경의 경우 번역본이 달라 모임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신자분들께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경을 보시기도 하지만,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래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성경과 성가집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성경과 가톨릭 성가집이 마련된다면, 기도와 성경 나눔의 시간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말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과 성가집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수녀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과 피정 프로그램 안에서 이를 소중히 활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충실히 전하고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자분들이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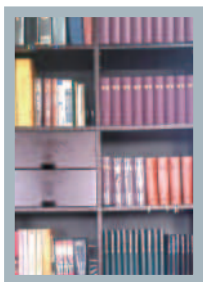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수녀들이 기도 모임 참석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도 안에서 말씀의 힘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끝으로, 후원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6년 1월 31일 손순심 안젤라 수녀 드림



책장에 국성회가 후원한 성경과 성가집이 꽂혀있다.

☞ ●2026년 3월 22일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에 기도모임, 피정자들을 위한 신구약성경 50권, 가톨릭성가집 50권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

성경과 가톨릭성가집을 지원받은 작은자매관상선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고마움을 전해왔습니다.

어제 성경과 가톨릭 성가 잘 받았습니다. 무어라 고맙다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성경으로 영적 부유함을 가득히 채워가는 밑거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셉의원라 국성회를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6년 3월 23일 손안젤라 수녀 드림

[선교 현장에서] 국내 수정성모 트라피스트수녀회 지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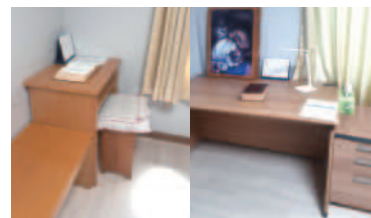
“고요 속에서 만나는 말씀의 은총”

고요와 침묵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여정에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정성모 트라피스트수녀회는 침묵과 기도, 그리고 노동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살아가며,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조용한 피정의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은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본 수도원 피정의 집에는 그동안 오래된 성서가 비치되어 있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정 오신 영원한 도움

의 성모 수녀회의 김 아녜파 수녀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유해 주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정의 집에는 주로 개인 피정을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친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이 조용히 머무르며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어 다시 삶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분들에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살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피정의 집' 방 안에 성경을 비치한 모습.





새로운 성령이 마련된다면, 피정자들이 보다 깨끗하고 온전한 말씀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묵상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안에서,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을 더욱 또렷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바람이 피정자들의 마음 안에 오래도록 머무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조용히 희망해 봅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평화가 고요히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

2026년 1월 21일 실비아 수녀 드림

☞ ● 2026년 3월 22일 (재)수정성모트라피스트수녀원에 피정자들을 위한 신구약성경 25권을 지원했습니다..



[가톨릭 전례상식]

‘부활시기와 부속가’

가톨릭 교회는 전례력을 통해 구원의 신비를 시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교회의 전례는 대림시기,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연중시기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기념합니다. 이 가운데 부활시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 속에 기념하는 시기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부활시기** : 부활시기는 부활 대축일부터 시작하여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약 50일간의 기간입니다. 교회는 이 기간을 ‘기쁨의 오십일’로 지내며, 하나의 큰 축일처럼 기념합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묵상합니다. 부활시기의 주요 축일로는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고 성령강림 대축일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강림 대축일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날로,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전후하여 본당에서는 성령칠은(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효경, 경외심)을 묵상하거나, 미사 중 성령칠은 카드 뽑기 등의 신심 활동을 통해 성령의 은총을 새롭게 청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삶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시는지를 되새기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 **부속가** : 부속가(Sequentia)는 가톨릭 교회의 특정 전례일이나 전례시기의 미사 중 복음 환호송(알렐루아)을 바치기 전에 그날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부르는 찬미가입니다.

현재 전례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부속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님부활대축일의 “파스카 희생제물(Victimae Paschali)”
2. 성령강림대축일의 “오소서 성령님(Veni Sancte Spiritus)”
3.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의 “시온아, 찬양하라(Lauda Sion)”
4.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의 부속가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Stabat mater)”

이 가운데 부활시기에는 부활 대축일과 성령강림 대축일의 부속가가 반드시 노래되며, 각각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은총을 장엄하게 드러냅니다.

부속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전례 안에서 신앙을 더욱 깊게 체험하도록 이끄는 기도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여할 때, 우리는 전례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전례의 의미를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성령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가톨릭 전례력 및 성령강림대축일 관련 전례 해설 자료

+ 국성회 지원 내역(2026년 2월~3월) : 4,020,000원

- ☞ ● 2026년 3월 22일 손순심 안젤라 수녀(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에 기도 모임과 피정자들을 위한 신구약성경/2단 50권(1,680,000원), 가톨릭성가집 혼성 25권(500,000원), 가톨릭성가집 단성 25권(340,000원) 지원 (총 2,520,000원)
- 2026년 3월 22일 실비아 수녀(수정성모트라피스트수녀회)에 피정자들을 위한 신구약성경/전단 25권 지원 (1,500,000원)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6년 2월~3월)

- 강남욱 ■ 강석철 ■ 강은영 ■ 강인열 ■ 강정아 ■ 강정인 ■ 강정훈 ■ 강평순 ■ 강화정 ■ 고도원 ■ 고민석 ■ 고현수 ■ 공혜경 ■ 곽순용 ■ 곽정용 ■ 곽혜숙 ■ 구경모 ■ 권영자 ■ 권정열 ■ 권희재 ■ 권희백 ■ 김경옥 ■ 김경준 ■ 김경희 ■ 김금재 ■ 김기진 ■ 김남순 ■ 김대곤 ■ 김대운 ■ 김동화 ■ 김면구 ■ 김명숙 ■ 김명자 ■ 김명희 ■ 김미현 ■ 김범준 ■ 김병석 ■ 김병희 ■ 김석주 ■ 김선희 ■ 김성권 ■ 김성중 ■ 김소연 ■ 김수미 ■ 김수영 ■ 김수현 ■ 김열자 ■ 김영배 ■ 김영숙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덕 ■ 김우형 ■ 김윤순 ■ 김은미 ■ 김응경 ■ 김재덕 ■ 김재영 ■ 김재은 ■ 김정례 ■ 김정애 ■ 김정연 ■ 김정옥 ■ 김정화 ■ 김종우 ■ 김종호 ■ 김주연 ■ 김주연 ■ 김진미 ■ 김태규 ■ 김태성 ■ 김태희 ■ 김해숙 ■ 김현경 ■ 김현숙 ■ 김현숙(엘리사벳) ■ 김현조 ■ 김현준 ■ 김현호 ■ 김형주 ■ 김혜숙 ■ 김혜순 ■ 김후선 ■ 남기호 ■ 남하나 ■ 노정옥 ■ 도성록 ■ 류미나 ■ 류연자 ■ 류지영 ■ 류지한 ■ 류혜선 ■ 문순자 ■ 박경희 ■ 박병우 ■ 박병윤 ■ 박석준



- 박성하 ■ 박소라 ■ 박소향 ■ 박수진 ■ 박언빈 ■ 박영심 ■ 박영우 ■ 박윤진 ■ 박은자 ■ 박이식 ■ 박재우 ■ 박주영 ■ 박진희 ■ 박창희
- 박춘옥 ■ 박향순 ■ 박혜숙 ■ 박혜준 ■ 박화영 ■ 박희정 ■ 배보윤 ■ 배소영 ■ 배진호 ■ 배창희 ■ 백순경 ■ 백영희 ■ 사공일 ■ 서우정
- 서은희 ■ 서정숙 ■ 서정주 ■ 서현경 ■ 서현동 ■ 서효리 ■ 성정인 ■ 성효인 ■ 손소영 ■ 손지혜 ■ 손필숙 ■ 손현채 ■ 송미경 ■ 송보영
- 송재욱 ■ 신수정 ■ 신승영 ■ 신재용 ■ 신중진 ■ 신해경 ■ 심정연 ■ 심정현 ■ 안연근 ■ 안예희 ■ 안형모 ■ 양기라 ■ 양동열 ■ 양영실
- 양창호 ■ 엄옥진 ■ 오동건 ■ 오민아 ■ 오승웅 ■ 오영신 ■ 오정아 ■ 왕복근 ■ 원서윤 ■ 위원량 ■ 유영희 ■ 윤선희 ■ 윤소연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은숙 ■ 윤창현 ■ 이강득 ■ 이강림 ■ 이건창 ■ 이경자 ■ 이계영 ■ 이계현 ■ 이광수 ■ 이금희 ■ 이동진 ■ 이동혁
- 이명순 ■ 이미순 ■ 이미용 ■ 이보경 ■ 이상기 ■ 이상미 ■ 이상순 ■ 이상현 ■ 이석재 ■ 이선숙 ■ 이숙연 ■ 이승현 ■ 이양숙 ■ 이연우
- 이연희 ■ 이영숙 ■ 이영우 ■ 이영자 ■ 이영희 ■ 이영희(수서동) ■ 이용순 ■ 이용애 ■ 이은숙 ■ 이은정 ■ 이의정 ■ 이인하 ■ 이일호
- 이장순 ■ 이장환 ■ 이재림 ■ 이재익 ■ 이정훈 ■ 이정희 ■ 이종상 ■ 이종윤 ■ 이주현 ■ 이주현(수서동) ■ 이준호 ■ 이종환 ■ 이지윤
- 이지현 ■ 이진수 ■ 이춘영 ■ 이학천 ■ 이해동 ■ 이해자 ■ 이행선 ■ 이향미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정 ■ 이해연 ■ 이희자 ■ 임대호
- 임선영 ■ 임애란 ■ 임연화 ■ 임옥란 ■ 임진수 ■ 임채영 ■ 임태남 ■ 장민정 ■ 장수진 ■ 장옥란 ■ 장재석 ■ 장혁주 ■ 장혜선 ■ 전대수
- 전대영 ■ 전명희 ■ 전소연 ■ 전 숙 ■ 전양기 ■ 전 옥 ■ 전유민 ■ 전은숙 ■ 전지원 ■ 정성택 ■ 정성희 ■ 정수자 ■ 정영길 ■ 정영미
- 정은주 ■ 정일진 ■ 정재은 ■ 정주혜 ■ 정지현 ■ 정진영 ■ 정하숙 ■ 조경연 ■ 조덕순 ■ 조무건 ■ 조상례 ■ 조소연 ■ 조윤희 ■ 조정선
- 조주연 ■ 조지원 ■ 조하영 ■ 조현숙 ■ 조현순 ■ 조혜선 ■ 조혜숙 ■ 주덕진 ■ 주현수 ■ 진수은 ■ 최경의 ■ 최동선 ■ 최두혁 ■ 최명숙
- 최명옥 ■ 최서영 ■ 최순금 ■ 최영연 ■ 최임영 ■ 최종숙 ■ 최창진 ■ 최춘배 ■ 최준이 ■ 최준호 ■ 최형임 ■ 최흥식 ■ 하금태 ■ 한나진
- 한선주 ■ 한윤정 ■ 허 근 ■ 허난숙 ■ 허봉희 ■ 허정희 ■ 허진희 ■ 홍덕희 ■ 홍성실 ■ 홍순화 ■ 홍지원 ■ 황분옥 ■ 황숙연 ■ 황영희
- 황태운 ■ 황현지 ■ 진석실업
- **신 규** ■ 김수연 ■ 류여нат ■ 서미나 ■ 서병교 ■ 심주영 ■ 이종옥 ■ 이혜순

+ 후원해 주신 분들 - 성직자 및 단체(2026년 2월~3월)

- 김경식 ■ 김동주 ■ 김원호 ■ 박우준 ■ 서상범 ■ 신현박 ■ 오창선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홍근표

+ 국성회 후원 방법

1. CMS 신청

-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 신청자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신청자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월 출금액, 출금을 원하시는 날짜(1일/10일/25일)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와 은행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합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 2026년 2월~3월
후원금 내역 : 18,445,000 원

2026년 5월 국성회 후원회 미사 안내



일시 : 2026년 5월 12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역 요셉의원 7층 경당(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9)
교통 : 지하철 1호선, 4호선 서울역 14번 출구 앞.
 버스는 서울역환승센터, 남대문경찰서, 갈월동 버스정류장에서 10분 이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달아 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 요한의 첫째 서간 3, 17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 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8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
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
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후원관리팀에 전화(02-2637-7258)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
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2-2637-7258)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
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국민은행	364301-04-236621	요셉나눔재단법인

■ 위의 계좌 이외에 기존에 납입하고 계신 요셉의원 계좌도 유효합니다.

요셉의원 이전에 따른 환자 지원 프로그램 변경 안내



영화 포럼

일시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장소 7층 경당



음악치료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7층 경당



목욕서비스

필요에 따라 운영 예정



이미용서비스

프로그램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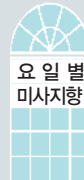


옷나눔서비스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

미사
안내

요셉의원 7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
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 경험과 진료받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진료받으며 느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